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영범^{1*}

¹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A Study on the Training Programs of Space&Environment as Media for School Education

Young Bum Reigh^{1*}

¹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요 약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생활환경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적 의식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다. 공간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초등학교의 공간환경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공간환경의 이해에만 그치고 있고, 공간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공간환경을 미디어로 한 교과목간의 협력형 수업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결합된 입체적 교육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 밖 교육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연계되거나 교육결과가 사회와 공유되는 교육의 소통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핀란드와 영국에서 학교와 학교 밖 기관이 연계하여 진행되는 공간환경 매체형 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간환경을 통한 교육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의 공간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현재 진행되는 국내의 학교교육 중심의 공간환경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Proper education for the space&environment as a medium for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can be understood as the necessary training for maintaining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sharing of community lives.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s of space&environment as a medium will help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to understand the meanings and values contained in the living environment by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creative culture and responsible social consciousness. In this paper, the analysis will b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education programs of space&environment of inside the school education in progress in Korea. Major parts of the paper will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space&environment education by looking at the contents and activities of diverse training programs of Finland and UK.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how to activate collaborative school education on the space&environment by the complement of the ongoing problems found in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 studies.

Key Words : Education of Space&Environment; Space&Environment as Media; Collaborative Education; Outside-School Education Curriculu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간환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콘텐츠의 물리적 토대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이다. 또한 공간환경은 지속가능성이나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고양과 같은 사회가 추구하거나 지향해야만 하는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인식의 확장은 개인의 삶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공동체적 삶을 향한 가치지향을 성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환경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은 공간환경의 중요성과 의미를

*교신저자 : 이영범 (ybreigh@hanmail.net)

접수일 11년 11월 17일

수정일 11년 12월 02일

게재확정일 11년 12월 13일

전달하는 성격과 공간환경을 통해서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화예술적 감성을 체험하게 하는 성격을 갖는다. 사회의 가치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환경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공간환경 매체의 의미와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살피고, 공간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교육프로그램과 교과활동의 내용과 가치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는 국내의 학교교육 중심의 공간환경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공간환경을 매체로 하여 개발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문헌조사와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공간환경의 콘텐츠들을 분석하고, 각기 다른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공간환경의 가치와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공간환경 매체형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공간환경과 관련된 초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공간환경 매체를 통한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초점을 맞춰 영역을 구분하고, 현재 초등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위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으로서의 공간환경 매체형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서 핀란드와 영국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협력적 교육유형과 교육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국내 학교교육에서 공간환경 매체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제안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2.1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개념

2.1.1 공간환경 매체의 개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쉼 수 없는 생활매체로서 공간환경과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가족이란 사회적 범주 안에서 집이란 공간환경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며, 교육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환경과 상당히 오랜 기간 상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한 공간환경의 이해도 중요하며 학교라는 공간환경 자체에 대한 학습과 인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성장기 과정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놀이터, 동네, 쇼핑몰,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광장, 자연환경 등의 공간환경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학교교육 안에서 얻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성의 진작에 도움을 주며 공간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공간환경(Space&Environment)이라는 용어는 건축물이나 도시시설물과 같은 물리적인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포함하면서 구체적인 삶과 연관된 장소성, 문화예술성, 도시성, 역사성과 같은 도시 공간에 내재된 특성이 결합된 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간환경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 숨 쉬는 좋은 교육매체라고 할 수 있다.

2.1.2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개념

공간환경 매체는 공간환경 그 자체를 교육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매체개념, 공간환경을 매체로 하여 공간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콘텐츠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매체개념, 그리고 공간환경을 다룬 미디어 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으로서의 매체 개념은 구체적으로 방과 주택 같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개인적인 공간에서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사회 공동의 문화예술공간, 학교나 공공청사와 같은 공공시설, 고궁과 사찰과 같은 문화재, 공원과 광장과 같은 옥외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적 이슈나 무장대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교육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간환경 매체는 태양열 주택, 풍력발전소, 지하철역사 등을 들 수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공간환경을 매체로 하는 교육은 디자인 교육, 문화예술교육, 환경교육, 공간인지교육, 건조환경교육, 도시역사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2.2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2.2.1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필요성

집, 학교, 동네는 아이들에게 생활을 통한 체험과정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다. 그 공간이 좋거나 아니면 좋지 않거나 아이들의 삶의 질에 이러한 공간환경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발행한 건조환경교육 가이드라인은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공간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1]. 또한 공간환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간환경에 대한 교육은 교과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2.2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내용

공간환경을 매체로 하여 체험하는 교육내용을 크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측면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을 통한 교육은 보다 나은 도시환경의 구축은 도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도시의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사회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의 수용, 범죄감소 및 예방,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통해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교육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은 문화를 통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며 도시 또는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도시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통해 여가와 축제의 장소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교육한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만들 수 있음을 교육한다. 또한 도시 내 건강한 녹지를 확충하고, 자동차 이용 감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대기오염과 소음도 줄일 수 있으며, 도심 생태계 또한 복원하여 글로벌 이슈로서의 지구살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게 한다.

다섯째, 교육적 측면에서 좋은 공간환경을 통한 교육은 서로 다른 교과목들이 어떻게 공간환경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일깨워주며, 공간에의 주인의식과 함께 사는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공간환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3. 국내외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프로그램

3.1 국내 공간환경 교육 프로그램

3.1.1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공간환경 교육프로그램

국내 교육과정 개정안 중에서 공간환경 교육과 가장 밀접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 이래 교과와 특별활동의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편제되었다. 이후 7차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에서 특별활동 외에 재량활동이 신설되었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변경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2, 3].

현재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당은 1-2학년의 경우 연간 272시간, 3-6학년은 204시간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영역은 크게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활동 중 공간환경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병원,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 방문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보호활동은 공간환경을 매체로 하거나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과 체험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영역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이 교과목의 내용과 서로 연계되거나 협력하여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4].

[표 1]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Table 1] Creative experimental activities of elementary schools

분류	관련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 재량활동 2개 영역/특별활동 5개 영역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 재량 및 특별활동 시수 확대 - 개성신장, 여가선용, 창의성개발 치중
내용	공통 - 창의적, 공동체 의식 함양을 강조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 - 자율활동 영역에서는 자치·적응·행사·체험 활동과 학교 창의적 특색활동

	-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는 학술 · 문화예술 · 스포츠 · 실습노작 · 청소년단체 활동 포함 (실습 노작 활동에 '설계, 목공' 포함) - 진로 활동 영역에서는 자기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계획 및 체험 활동 포함
초등학교	- 학생의 기초생활습관의 형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개성과 소질의 발현에 중점 -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율 활동 중심의 입학 적응 프로그램, 고학년은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운영

3.1.2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공간 환경 교육의 강화

공간환경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디자인 교과서가 개발되어 초등학교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 교육의 강화는,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디자인교육을 기존 제도권 교과교육에 접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예술과목 교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디자인 교과서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수업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교과서는 디자인의 원리와 조형, 디자인과 생활, 디자인과 경제, 디자인과 사회, 디자인과 문화, 디자인과 미래의 총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년별로 디자인 활동을 통한 자기개발의 범위와 특성을 차별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재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공간환경을 매체로 협력과 소통의 범 교과형 교육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5].

또한 서울시는 '초등 디자인 연구 시범학교'로서 구현 초등학교, 수락초등학교, 압구정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 43시간을 다채로운 디자인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한 '초등 디자인 연구학교' 사업을 통해 전국 8개 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친환경, 생활, 안전, 전통 등의 공간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3.1.3 학교 밖 연계교육 프로그램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문화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건축학교나, 건축문화학교와 한국실내건축가협회의 어린이실내디자인학교 등이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며, 민간산업체 주관으로는 브리코 어린이건축교실이

나 삼성물산 어린이 친환경 건축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환경 교육기관으로 K-12 건축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비영리 교육재단으로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의 재량활동, 교외 워크숍 등을 통해 공간환경 매체형 교육을 담당하였다.

K-12 건축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건조환경과 전반에 대한 이해, 공간적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 구조적 합리성, 지역성과 역사성, 공동체와 공동성, 합리적 결정과 그 이행, 협력과 노동과 성취의 7가지 주제를 갖고 마을지도 만들기, 동화속의 공간, 답사여행, 아지트 만들기 등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프로젝트형 수업은 주제에 대한 이론 강의와 토론, 실습, 조사 및 답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6].

【표 2】 박물관·미술관 연계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Table 2] Art&culture educational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s as joint programs of museums and galleries

구분	연구 학교	연구주제	개발 프로그램
박물관	서울 흑석 초등학교	-박물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방안	-문화탐사반 연계 박물관 교육 -문화탐사반 박물관 프로그램 공동진행 -역사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및 활동지 개발 우리가 만드는 신나고 재미있는 워크북
	정읍 영원 초등학교	-박물관 연계 체험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학생들의 사이버 체험학습방 '재미나는 박물관'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 -박물관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모형 구축
미술관	서울 신목 초등학교	-미술관 연계 학습 프로그램의 구안 · 적용을 통한 감상능력 신장	-교원연수 총 7회 -미술관 여름방학 활동지 개발 -재미난 먹그림 1차프로그램 실행 -빛으로 그린 그림 2차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평가 및 모델화 연구 실행
	서울 창립 초등학교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중심의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	-마로니에 미술관·점점발전소와 4학년 대상 쌍쌍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개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와 연계하여 'Human Maze' 동기로 한 체험학습 실행

학교 밖 연계교육 프로그램이 제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2005년 '박물관·미술관 연계 초·중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7]. 재량학습, 특기적성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내 다양한 학습과 접목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국 6개 초등학교를 박물관·미술관 연계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와 문화기반 시설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학습모형을 만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표 2 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제 수업이 확대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문화, 예술, 체육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을 수립하여 향후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다양한 입체교육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4 국내 공간환경 교육의 평가

국내 초등학교 정규교과과정에서 공간환경에 대한 교육은 디자인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교재개발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간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공간환경을 미디어로 하여 교과목간의 협력형 수업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결합된 입체적 교육의 형태까지는 시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공간환경에 담긴 환경적 이슈나 공공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학습과 체험의 형태로 교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공간환경 자체가 교육 장소로서의 단순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학교 밖 교육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연계되거나 교육결과가 사회와 공유되는 교육의 소통은 미흡한 실정이다.

3.2 국외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프로그램

3.2.1 핀란드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프로그램

1)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추진배경과 과정

핀란드에서 공간환경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정으로의 수용은, 도시의 공간환경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간환경과 관련된 전문가와 전문기관, 학교, 공공기관, 일반시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도시 및 건축의 공간환경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에 근거하여 1992년 ‘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과목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적 평균화 달성’을 목표로 지역, 공공, 사립예술기관 모두에게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술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예술과목의 범주에 건축이 포함되었다[4].

1998년 공포된 건축정책에서는 건축의 공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축을 환경교육, 지리, 역사, 정치 등을 교과과정의 일부로 편입하여 공간환경이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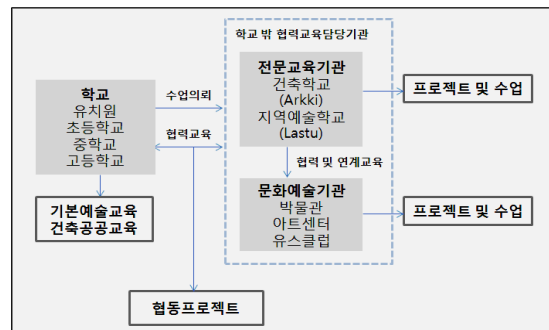
제 분야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 교과과정을 통해 다루기 시작했다.

2)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협력교육 기관의 설립과 활동

핀란드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시민교육으로서의 건축 및 도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핵심 교육기관은 아르키(ARKKI: School of Architecture for Children and Youth)이다. 아르키는 1994년에 설립된 방과후 학교로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을 교육콘텐츠로 특화하여 기초건축교육을 제공하는 공공교육기관이다. 헬싱키뿐만 아니라 핀란드 내의 다른 도시와 영국의 런던에 지부를 두는 등의 다양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8].

아르키에서는 유치원단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크게 3개의 교육범주를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대상에 맞는 내용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4세부터 6세까지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 7세부터 13세의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체험과 재미를 통해 교육하는 클럽형 교육, 14세부터 18세까지는 심화학습그룹의 형식으로 교육한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예술학교로는 라스투(LASTU)를 들 수 있다. 건축과 환경문화를 교육하는 라스투는 1993년에 설립되어 공간환경에 대한 강좌 및 교육, 워크숍, 캠프, 전문가를 위한 문화제 및 건축복원 과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서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협력 및 연계시스템은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지역의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아르키나 라스투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젝트형 협력교육이나 방과후 교육, 교사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 1】 핀란드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의 협력 시스템

【Fig. 1】 Collaborative system for space and environment media education in Finland

3)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건축이 특화된 공간환경 교육기관인 아르키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정규과정, 단기과정, 협력과정, 특별과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과정별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방과 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협력과정의 경우 지역의 타 문화예술기관이나 지역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간환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협력형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협력의 주체들 간의 역할은 교육에 대한 지원, 교육의 담당, 교육의 홍보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특정한 주제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룹형식의 집중교육이 필요할 경우 캠프 등의 특별과정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이슈가 연계되고 교육과정에서 교육자간의 협력, 피교육자간의 협력작업이 진행된다[9].

학교교육과 연계된 단기과정 프로그램으로서 아르키에서는 매주 28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헬싱키(Helsinki), 에스푸(Espoo), 반타(Vantaa)의 세 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아르키가 진행하는 협력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아르키가 박물관 등의 공공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건축전시회나 워크숍, 강연회 등의 개최, 시정부의 도시계획국과 연계한 지역 마스터플랜 워크숍과 같은 협력 프로젝트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헬싱키의 아르키는 아이들이 공간환경 매체형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용갤러리에서 전시하여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아이들이 공간환경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지에 대해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4, 8, 9].

[표 3] 아르키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협력교육프로그램
[Table 3] Collaborative education program of Arkki for space and environment

구분	교육 프로그램 내용	
협력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협력과정	- 이르키와 박물관 등의 공공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건축전시회나 워크숍, 강연회를 개최 - 시정부의 도시계획국과 연계한 협력프로젝트나 회사와의 산학협동 프로젝트형 수업 진행
	특별과정	- 매년 여름캠프로 오두막 짓기 프로그램을 진행
	전시	- 아르키에서 작업한 교육프로그램 결과물을 자체 전시 - 예술학교의 작업을 지역미술관을 통해 기획전시의 형태로 개최
협력 교육 프로그램	일반학교 주관	- 공간환경과목, 미술과목, 기본예술과목 교육프로그램
	아르키	- 정규과정속의 연령별 건축수업

사례	주관 협력 프로그램	- 워크숍형태의 지역마스터플랜 프로젝트
	지역박물관 주관협력 프로그램	- 핀란드 대표건축가 알바알토의 작업에서 테마찾기 - 지역건축가의 건축물을 소개하는 루트 및 지도제작 - 자전거 루트 만들기 프로젝트
	공공기관/학교협력 프로그램	- 핀란드 참나무 프로그램

[표 4] 아르키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협력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Table 4] Types of collaborative education programs of Arkki for space and environment

구분	교육 프로그램 내용	
공간 매체형 협력 교육 프로그램 유형	주체간 협력 교육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간환경의 분석과 디자인을 통해 공간환경에 담긴 이슈를 함께 발견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진행
	분야간 협력 교육	-공간환경의 인지를 위해 신체의 감각구조를 통해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특성을 교육-감각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는 교육을 통해 장애자들이 공간에 대해 갖는 불편함을 이해하도록 도움
	지역현안을 통한 협력 교육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을 도시계획국이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 -연령대별로 동일한 마스터플랜에의 참여 교육 방식을 달리하여 교육생들이 개발의 아이디어와 모형을 제작 -작업결과를 전시하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도시계획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3.2.2. 영국의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프로그램

1) 학교 밖 교육 전달기관의 설립

영국은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에서 강화하였다. 특히 학생 스스로의 체험과 창의력 증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학교 밖 교육’을 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위원회(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를 2006년도에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의 핵심을 창의력 향상과 다양한 교과영역의 통합교육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개선시키는 공간환경 및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10].

영국의 학교 밖 교육위원회는 학교 밖 교육을 위한 기

초작업으로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교재 개발에 힘쓴다. 교재개발의 목적은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공간환경과 일상생활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범 교과서적인 학습을 통한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다양한 교재를 통한 학습에서, 공간환경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통해 다양한 표현능력을 키워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삶 주변의 공간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을 키운다.

2)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협력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공간환경 협력형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은 지금은 예술위원회(Arts Council)에 흡수통합된 건축 및 도시환경위원회(CABE),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 건축네트워크 센터, 그리고 헤리티지재단 등이 있다. 건축 및 도시환경위원회가 공간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교재를 제공하고 있고 헤리티지재단의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 및 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교재로 개발하고 있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에서는 전문기능계속교육(Continuing of Professional Development)과정을 개설하여 교사의 공간환경 및 도시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문가인 건축가와 교육자인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공간환경 이해를 위한 일반프로그램 제공
영국의 건축 및 역사문화와 관련된 전문기관들은 학교 밖 교육을 통한 공간환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도시환경의 답사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비단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 일주일 동안 개최되는 건축주간(Architecture Week)프로그램 기간 동안, 건축 관련 기관, 설계사무소, 갤러리, 대학건축교육기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부모, 일반인 등에게 평소에 개방되지 않았거나 유료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면 무료 개방하고 건축가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투어프로그램과 토론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11]. 또한 도시디자인주간(Urban Design Week)이나 문화유산 개방주간(Heritage Open Days) 등을 통해서 장소와 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존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4. 결론: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 활성화 방안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은 지속가능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다양한 교재와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관련 전문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과 협력형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에서 공간환경 매체형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 교육의 협력, 교육주체로서의 기관의 협력, 교육이슈의 통합, 지역사회와의 연계, 공간환경에의 참여의식의 고양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공간환경을 매체로 한 학교 교과과정의 연계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둘째, 공간환경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재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공간환경 교육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공간환경 매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공간환경 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공간환경 매체형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체험형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숍, 강좌, 답사 등을 결합한다.

여섯째, 전시 및 출판물 통해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References

- [1] UIA, Built Environment Education Guidelines, UIA, 2008
- [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n hand(Elementary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 [3] Park, Jae Yoon, Guidelines for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Proceedings of Forum for Guideline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pp.3-27, Korea Institute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9
- [4] Kim, Young Hyun & Jin, Hyun Young, "A study on the practice of basic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expansion of architectural culture", Research Paper of Architecture & Urbanism Research Institute, Architecture & Urbanism Research Institute(AURI), 2011
- [5]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esign(Textbook of creative autonomous activities for 5th & 6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0

- [6] K-12 Architecture School, AE80 Programs of architecture school for children, Gutda Press, 2011
 - [7] Kyu, Jae Man et al.,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rt&culture program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joint with museums and galleries", Korea Arts&Culture Education Service, 2005
 - [8] Homepage of Arkki. <http://www.arkki.net>
 - [9] Pihla Meskanen, Architecture education in Finland - A glimpse to the everyday in 2008, ARKKI, 2008
 - [10] Homepage of 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http://www.lotc.org.uk>
 - [11] Architecture Week Homepage. www.architectureweek.org.uk
-

이 영 범(Young Bum Reigh)

[정회원]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1996년 7월 : 영국 AA School 대학원 도시건축과정 (Ph.D)
- 1999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공간이론, 공간사회학,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커뮤니티디자인